“불교유산 戰時 관리 정책 전무, 대책 필요”

조계종 문화부 · 불교문화유산硏 ‘韓전쟁과 불교유산’ 학술대회
전쟁시 문화유산 관리 언급 無
배기동 회장, 푸른방패위 소개
중요 문화유산 ‘푸른방패’ 표식
유사시 적국 공격서 제외 ‘예방’

정현선 기자 honsonang@kakao.com



조계종 문화부와 불교문화유산연구원이 주최한 ‘한국전쟁과 불교유산’ 학술대회는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불교유산 사례를 살피고 보존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진행된 한국전쟁은 국토를 초토화 시켰고, 불교문화유산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월정사, 봉선사, 건봉사 등이 전소됐고, 김천 쌍계사지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등이 소실됐다. 부처님 말씀을 담았던 목판 경판들도 전쟁으로 인해 사라졌다.

한국전쟁은 전시(戰時) 문화유산 관리의 중요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하지만 현재 국가유산재난안전관리 계획에 전쟁 시 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없는 것으로 알려져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배기동 푸른방패한국위원회장(한양대 명예교수)은 11월 20일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유산-역사적 기록과 미래 과제’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의 기조발표에서 전시 문화유산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배 회장은 ‘한국 동란의 경험과 불교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국가 전략과 제도’를 주제로 한 기조발표에서 한국은 전쟁에 대비해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배 회장은 “통계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전소된 사찰은 185개소에 달한다. 당시 전쟁 중 문화유산에 대한 고려나 중요성에 따르는 판단은 거의 없었던 셈”이라며 “한국전쟁 과정에서 적군의 거점을 없애자는 의도로 유엔군과 국군, 경찰에 의한 불교문화유산의 훼손이 더 많았다는 점은 전쟁 시 문화유산 관리지침과 원칙을 만들어야 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3년 국가유산재난안전관리 5개년 계획안에 전시 문화유산 관리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주로 화재, 홍수해, 흰개미 피해 등을 주요한 재난 원인으로 보고 있다”며 “전쟁은 가장 치명적이고 광범위한 문화유산 훼손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안일한 관리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 회장은 ‘푸른방패위원회’를 소개했다. ‘푸른방패위원회’는 국제박물관협회, 국제도서관협회, 국제아카이브협회, 국제유적유산위원회가 중심이 된 조직으로, 1954년 헤이그 협약의 실행을 위한 비정부국제기구다. 헤이그 협약은 전쟁으로 인한 문화유산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유네스코 주도로 체결됐다. 현재 133개국이 가입했지만 한국은 가입하지 않고 있다.

푸른방패위원회는 전쟁 시 문화유산 관리 방법, 전략과 군대와의 전술적 협력 방안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국가 중요 문화유산을 공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목록화하거나 표식을 부착해 문화유산이 공격 받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배 회장은 전시 문화유산 관리를 위해서 ‘헤이그 협약’에 한국 정부가 가입할 것을 권고했다. 배 회장은 “한국은 정부 부처 간의 입장 차이로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전쟁을 통해 많은 문화유산의 멸실을 경험하고 현재에도 휴전 중인 상황을 감안하면 헤이그 협약 가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국대, 중앙일보 대학평가 4년간 ‘톱10’

2024년 대학평가서 9위 기록
고교생 선호 대학 5위 기록해

동국대가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4년 연속 ‘톱10’을 기록했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11월 19일 발표된 2024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9위를 기록하며 4년 연속 상위 10개 대학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동국대는 △교육여건 10위 △교수연구 15위 △평판도 10위 △학생성과 9위 등 전체 평가 영역에서 고르게 약진하며 종합순위 9위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 윤재웅 총장 취임 2년 차를 맞은 동국대는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 취업 걱정 없는 대학’으로 변화하고 있다. 2021년부터 4년 연속 톱10을 기록, 올해는 9위를 기록하며 톱10 대학의 기반을 공고히 했다.

동국대는 교육여건 부문에서 이전보다 순위가 16계단 상승했고, 4년 연속 종합순위 톱10 달성으로 이어졌다. 학교법인 및 건학위원회와 함께 학생 장학금을 대폭 늘려온 동국대는 특히 신설 지표인 학생 1인당 장학금은 9위를 기록했으며, 등록금 대비 장학금 순위도 작년 대비 10계단 상승했다.

글로벌 관련 지표에서도 △외국인 교수 비율 4위 △학위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 8위 △외국대학 학점 교류 15위 등 전체적으로 고르게 약진해 10위에 올랐다. 교수연구 부문에서도 동국대는 △국제학술지 논문당 피인용 7위 △교수당 외부 연구비 9위 △교수당 국제학술지 논문 11위 △인문사회 교수당 국내논문 8위 △인문사회 교수당 저역서 8위를 기록했다. 또한, 신설 지표인 국제협력 논문에서도 12위를 기록하는 등 교수의 연구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음을 보여줬다.

동국대는 신설 지표인 고교생 선호 대학에서 5위를 기록했으며 △학부모 진학 선호 대학 9위 △특성화 우수 대학 6위 △기업 신입사원 선발 선호 대학 10위를 기록해 대학교육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윤재웅 총장은 “동국대가 확대·개편된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9위 달성 및 4년 연속 탑10에 안착한 가장 큰 요인은 학생장학금 등 교육여건과 교수연구 역량, 글로벌 역량, 그리고 평판도 역량이 모두 탄탄해졌기 때문”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특히 교육여건 관련 지표가 크게 개선된 점은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는 책임감 있는 대학의 역할을 보여준 것”이라며 “동국대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며 글로벌 명문대학을 목표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중일 기자

30돌 교정인불자聯 “MZ 포교, 수용자 전법으로 재도약”

‘전국교정인불자聯 30돌 기념법회’
11월 16일 조계사 대웅전서
전국 지회 100여 명 참석해



전국교정인불자들이 연합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포교 매진을 다짐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교도소 수용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가 30주년을 맞았다. 어윤식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장은 불자회원 수 감소로 침체된 조직을 위해 ‘MZ 포교’와 ‘수용자 전법’에 매진할 것을 천명했다.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회장 어윤식, 이하 교정인불자회)가 11월 16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 3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연합회의 3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인 동시에 조직 재도약을 다짐하는 법석으로 마련됐다.

어윤식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각 지회는 기존회원들의 정년 퇴임, 승진 전보 인사, 젊은 불자회원 감소로 위축되고 있다”며 “각 지회장들은 기존의 포교 방식에서 벗어나 ‘명상·템플스테이’ ‘5분 선명상 프로그램’을 활용해 젊은 불자들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처님 가르침으로 수용자들에게 밝은 표정과 따뜻한 말로 다가가야 하는 것이 참 불자의 자세”라며 “‘수용자 1인 1종교 갖기’ ‘불우수용자 돕기’로 수용자 전법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창립 30돌을 맞은 교정인불자회를 축하하는 출재가 지도자들의 인사도 이어졌다.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치사에서 “여러분은 수용자 관리부터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여러분의 노력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킨다. 창립 30주년 행사를 통해 여러분의 역량이 한층 증진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우수 회원들을 격려하는 표창장 수여도 진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에는 이희승 여주교도소 교도관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중앙종회의장 표창에는 권영천 의정부교도소 교도관 외 4명이, 포교원장 표창에는 신용훈 강원북부교도소 교도관 외 4명이 수상했다. 이외에도 이은미(서울동부구치소) 씨 외 10명에게 교정인불자회 지도법사 표창장이 수여되며 그동안의 전법활동을 격려했다. 수여식 말미에는 어윤식 회장이 직접 지도법사 선타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민재 기자

체육인불자聯 “공정한 체육회장 선거를”

“이기흥 향한 의혹 제기 멈춰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체육인불자연합회가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계종 체육인불자연합회(회장 문홍식, 이하 연합회)는 11월 1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내년 1월에 치러질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체육회 정관에 따라 공정하고 차별 없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외부 간섭 없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합회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둘러싼 근거 없는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회장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체육계와 불교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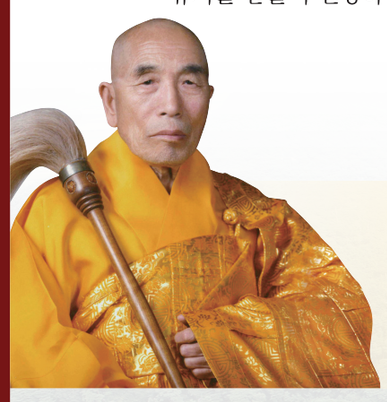
이어 “연합회는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스포츠계 발전과 국민 정서 함양에 기여해온 이기흥 회장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더 이상 확산하지 않길 부탁드린다”면서 “이번 선거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치러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기대했다.

김민재 기자

노천당 월하 대종사 열반 21주기 추모다례재

제12회 영축문화대상 시상식 · 노천당 월하 대종사 유영집 『무영수無影樹』 봉정식

영축산 아래 내려앉은 달그림자 사이로 노천당 월하 대종사의 무진법문이 들려오는 계절입니다. 영축총림 통도사와 노천문도회에서는 ‘노천당 월하 대종사 열반 21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합니다. 더불어 노천당 월하 대종사의 탄신 110주년이자 열반 21주기를 맞아, 대종사의 생애와 가르침을 담은 사진집 『무영수無影樹』를 봉정하는 뜻깊은 자리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대종사의 덕화를 기리고 유지를 받들어 선양하는 이 자리가 더욱 여법한 법석이 될 수 있도록 두루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종 정 중봉 성파
영축총림 통도사 방 장

영축총림 통도사 주 지 현 덕
(재)영축문화재단 이사장 이산 현문

일시 불기 2568(2024)년 12월 11일(음 11월 11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
장소 영축총림 통도사 설법전
문의 (재)영축문화재단 055)372-3722 홍성표 사무국장 010-4581-2597

제12회 영축문화대상 시상식
영축문화대상 수상자


학술문화상 김순석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


포교원력상 장정화 (KYBA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


봉사실천상 이정숙 (인성기공 부사장)

한 권의 사진집으로 엮은 월하 대종사의 생애와 가르침
노천당 월하 대종사 유영집 『無影樹무영수』



한국불교의 법통과 영축총림 통도사의 전통을 계승한 선지식
천근만근 시은의 무게를 검박하고 절제된 삶으로 짊어졌던 수행자
불교정화와 종단개혁, 격동의 시대를 해쳐 온 대종사의 등불 같은 삶을 재조명

노천당 월하 대종사 열반 21주기 추모다례재에서
『무영수無影樹』 봉정식을 봉행합니다.